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세계를 놀래운 《마식령속도》

2013년 12월 31일, 공화국에서는 마식령스키장 개장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옛날 산세가 하도 험해 말들도 쉬여가는 령이라고 하여 그 이름도 마식령,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한적했던 마식령에서 지금은 스키애호가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이 스키주로를 누비며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총 부지면적이 1 400여정보에 달하는 스키장을 새로 건설하는 일은 많은 난관을 동반하였다. 스키주로가 시작되는 대화봉정점에서 골짜기의 결승지점까지 수직높이 차는 수백m로서 주로형성에 현대적인 기계수단을 리용하기도 어려웠다.

산세험한 지형에 형성해야 할 스키주로들의 길이는 평균 1 700m, 최고 5 000m이상, 하나의 스키주로를 닦으려면 2만여㎥에 달하는 방대한 흙과 암반을 처리해야 하였다. 스키장지구에 일떠세울 건축물공사도 방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방대한 스키장건설을 인민군대에서 맡아하도록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마식령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은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그때부터 마식령은 낮에도 밤에도 정적과 고요를 몰랐고 분분초초가 용암과도 같이 끓어번졌다.

주체102(2013)년 5월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수십만㎥의 면적에 초중급스키주로와 고급스키주로들을 닦아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이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손수 한자한자 쓰신 력사적인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였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그이께서 보내주신 애국의 호소문은 군인건설자들이 스키장건설을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내밀어 완공의 날을 앞당겨올수 있게 한 위훈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였다.

마식령산발마다에 스며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땀과 위훈은 말로나 글로는 다 표현할수 없다.

장마비에 대화봉으로 오르는 도로가 끊어졌을 때에는 장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입병사들에 이르기까지 군인건설자들모두가 수십kg의 골재를 담은 마대를 메고 비속을 뚫고 대화봉으로 올랐다. 자연의 횡포를 맞받아 가파로운 산정을 톺아오르는 행렬은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순간의 침체나 답보를 모르는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가슴뜨거운 화폭이였다.

해발 1 000m이상 되는 산정에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것보다 더 간고한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전투와 동시에 벌어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스키장을 건설한다고 환경을 파괴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군인건설자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던 어길수 없는 준칙이였다. 한번의 발파면 모든것이 간단히 해결되련만 튀여나는 바위쪼각에 주변의 나무가 상할수 있다고 병사들은 집채같은 바위도 순수 정대와 함마로 한쪼각한쪼각 뜯어내였다.

도로에서 눈포저수지까지의 거리는 불과 450m, 병사들의 번개같은 일본새라면 몇시간만에 화물차라도 씽씽 올라갈수 있게 번듯한 도로를 닦았을것이다. 그러나 병사들은 쉽게 일하겠다고 나라의 자연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할수 없었다. 무성한 숲속으로 뻗은 마주오는 두사람이 겨우 어길만 한 한갈래의 오솔길을 따라 큰 나무는 물론 어린 나무도 조심히 에돌며 병사들은 하루에도 몇십번씩이나 등짐으로 건설자재를 날랐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주저없이, 멈춤없이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내달려온 군인건설자들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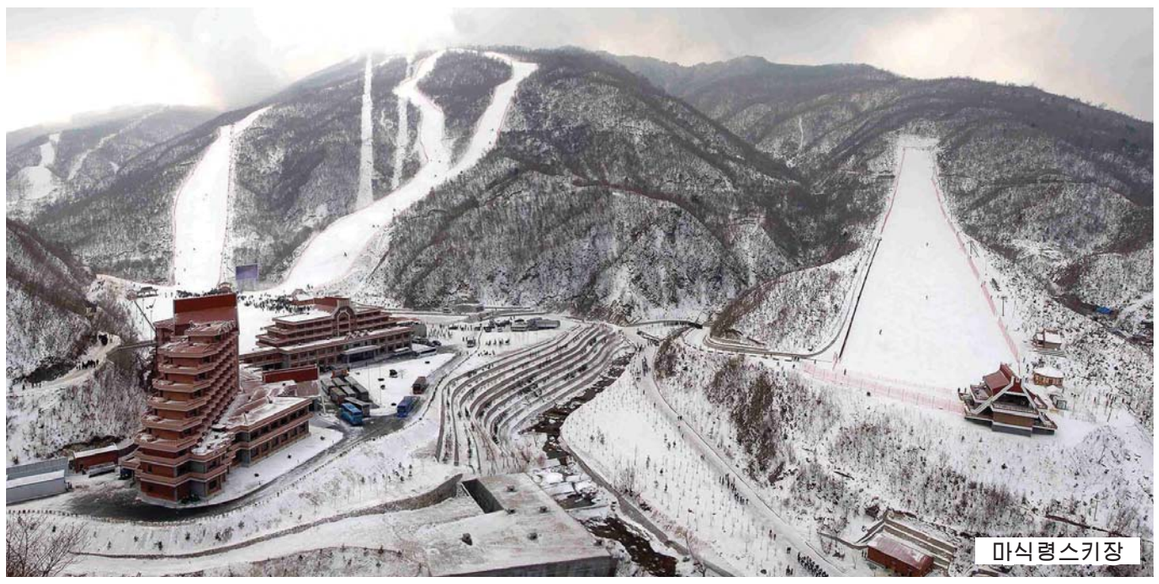
가슴마다에 결사관철의 정신, 애국의 열의가 차넘치는 이런 병사들이 있어 마식령지구에는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세계적수준의 스키장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은것이다.

후날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본 카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종합대학 정치학교수 박경애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공화국에서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스키장건설관계자들이 카나다에도 한번 왔으면 하는 의향을 제기하였었다. 카나다의 방쿠버에서 2시간정도 가면 위슬로스키장이 있는데 이 스키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곳이다. 이런 스키장을 돌아보면 마식령스키장건설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마식령스키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그곳을 참관하고서야 알게 되였던것이다. 세상에 소리치며 자랑할만 한 스키장이였다.》

이렇듯 마식령스키장은 조선의 기적의 대명사로 되였다. 마식령에서 타오른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은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로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마식령스키장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삼지연시의 세쌍둥이자매

온 나라 인민들속에 시대가 낳은 청년들의 미덕, 본보기로 알려진 삼지연시의 세쌍둥이자매가 한날한시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탄원하여 처녀돌격대원으로 위훈떨친 평양의 세쌍둥이자매인 장은혜, 장충실, 장보답은 혁명의 성지를 더 잘 꾸려갈 마음을 안고 삼지연시에 삶의 뿌리를 내리였다.

지난해 4월 삼지연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입사한 세쌍둥이자매의 가정을 방문하시여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보살펴주시면서 시집갈 나이에 이른 딸자식의 앞날을 헤아리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자신께 꼭 편지를 쓰라고 사랑어린 당부를 남기시였다.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값높은 청춘의 자욱을 새기여가는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세쌍둥이자매는 령도자를 따르는 한길에서 뜻과 정을 함께 할 일생의 길동무를 만나 참된 사랑을 꽃피웠다.

뜻깊은 결혼식을 하게 된 세쌍둥이자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사연과 보답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쌍둥이자매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친어버이의 사랑이 어린 결혼선물을 보내주시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세쌍둥이자매의 결혼식이 19일에 있었다.

량강도와 삼지연시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216사단 지휘관들, 가족, 친척들이 새살림의 보금자리를 펴게 된 세쌍의 부부를 축하해주었다.

세쌍둥이자매부부는 우리 시대의 청년으로서 응당한 일을 한 자기들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며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천만부모의 정을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으로 온 나라 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과 원수님의 안녕만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노래 《불타는 소원》을 절절하게 불렀다.

결혼식에 참가한 사람들모두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누려가는 끝없는 긍지와 행복에 넘쳐 신랑신부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며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었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약품들을 연구개발하여

❖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 오수산연구사 ❖

공화국의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에는 50여년세월 효능높은 약품들을 연구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는 공훈과학자이며 박사, 부교수인 오수산연구사가 있다.

오수산연구사의 고향은 경기도 김포시이다.

림진강과 한강이 합쳐지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에 그의 고향이 자리잡고있다고 한다.

해방후 외세가 강점한 남조선에서 인간이하의 갖은 천대와 멸시에 시달리다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아버지, 형님과 함께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평양의학대학에 입학하여 돈 한푼 안 들이고 배움의 꿈을 꽃피울수 있었다.

졸업후 그는 희망대로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존엄높은 새 삶을 안겨준 어머니조국을 위해 연구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그 나날 오수산연구사는 다른 나라들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실정에 맞게 필요한 약물성분을 추출해내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 실리마린단알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실리마린단알약을 국내에서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인민들의 병치료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은행잎동맥경화알약, 디기탈리스강심배당체약품인 디곡신, 디기톡신알약과 주사약을 비롯하여 국내에 흔한 원료를 리용하여 적은 원가로 효능이 높은 약품들을 수많이 연구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는 연구사업을 하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전》, 《식물화학약품생산기술》, 《식물성약품》, 《무른고약의 생산과 세계적발전추세》, 《약학사전》, 《고려약편람》을 비롯한 10여권의 가치있는 의학과학도서들도 집필하였다.

공화국에서는 효능높은 약품들을 연구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오수산연구사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국가적인 대회들에 대표로 내세워주었다.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인 오수산연구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약제심의분과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연구사로서 교육과학발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나라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해준 웅장화려한 려명거리 70층초고층살림집에서 살고있는 오수산연구사는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값진 삶과 행복에 대해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고 자식들에게 자주 말해준다고 한다.

올해 81살인 오수산연구사는 로당익장하여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로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세계지력경쟁마당에서 휘날리는

공화국기발

공화국인민들이 제일 가슴뿌듯해하는 순간은 아마도 장엄한 《애국가》의 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게양되는 바로 그때일것이다. 시상대에 오른 체육인도, 쇼뻥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특별상을 받은 어린이도,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7개의 금메달을 수여받은 처녀대학생도…

그것은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에 조선사람의 긍지와 존엄, 삶의 영예가 어리여있기때문일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공화국기발은 체육경기무대에서만이 아니라 인터네트상의 세계지력경쟁마당에서도 높이 휘날리고있다. 지난 3월 공화국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국제적인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인 《코드쉐프》경연에 참가하여 1등을 쟁취한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 경연에는 조선, 중국, 이란, 로씨야, 인디아를 비롯하여 70여개 나라 및 지역의 1만 5 915명의 대학생들과 프로그람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코드쉐프》경연은 우수한 프로그람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세계적으로 인기있고 권위있는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으로서 다른 경연들과 달리 경연기간(10일간)이 길고 프로그람작성에 대한 도전이 매우 치렬하다.

경연은 높은 코드작성능력뿐아니라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강의한 정신력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프로그람기술의 대결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생들이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인 《코드쉐프》경연에서 우승의 자리를 차지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학학생들은 2013년에 처음으로 《코드쉐프》경연에 참가하여 우승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전도가 매우 촉망되는 10대 후반의 대학생들인 김선군, 림광성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람경연에서 9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결과를 경연의 마감 한시간전에 제출함으로써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금성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학부에 입학한 이들은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만만한 야심과 배짱을 안고 학습과 탐구로 날과 달을 보내여왔다.

이렇게 다져온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가장 어려운 도전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 최고점수를 받고 인터네트상에 공화국기발을 자랑스럽게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지도교원인 교육정보화연구소의 정철룡교원은 대학의 학생들이 지난해 4월 뽀르뚜갈에서 진행된 제43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경연에서 은메달과 함께 동아시아지역 최우수상을 쟁취하고 지난 시기의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들에서 1등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30대의 실력있는 프로그람전문가이다.

2014년부터 경연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맡아 지도해온 그는 지난 기간 프로그람경연들에 제시되였던 수천개의 문제들을 류형별로, 난도별로 구분하여 방대한 자료기지를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최량화방안들을 세웠다.

그는 학생들의 성격과 심리를 깊이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론을 가지고 강의를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그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세계 일류급대학의 대학생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게 되였으며 리론적으로 완벽하고 착상이 기발한 프로그람작성의 능수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는 이번 경연에서 세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조선의 높은 교육수준을 평가하고 인정하면서 조선에 인재들이 많은데 대하여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본사기자 림광훈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기쁨을 안고
(제43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경연)

해외동포소감

선생님의 육아일기

공화국에 체류하였던 총련 조선대학교 홍윤실연구원이 《조선신보》(2019년 10월 2일)에 수기를 실었다.

그는 조국의 선생님이 교육자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감당해낼수 없을것이라고 말하는 자기에게 아들의 성장을 기록한 육아일기를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행복과 고민에 넘친 페지들을 번지며 나도 저절로 웃음이 났는데 어떤 페지에서는 눈길을 떨수 없었다.

《아가야! 어머니구실을 못한 이 엄마를 용서해라. …》

이렇게 시작한 일기에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이 점적을 달고 우는 모습에 접하여 너무도 가슴아파 자기를 원망하며 사죄하는 내용이 씌여져있었다.

눈물로 퍼진 글자들에 나의 가슴도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또 몇페지를 번졌다.

2002년 어느날, 그것은 아들의 장래를 꿈꾸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가야, 인재가 강하기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단다.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는 교원이다. 엄마는 이 나라를 떠받드는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키우리라 너에게 약속한다. 아가야, 너도 피타는 노력을 하여 내 조국의 큰 짐을 덜어주고 세계에 으뜸가는 높이에로 올려세우는 애국자로, 장한 조국의 아들로 자라거라!》

선생님도 어머니이다. 제 자식이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것은 부모들의 당연한 심정이 아닌가.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자기 아들 하나만이 잘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더 존엄높고 더 좋은 생활이 약속된 나라, 그런 조국을 아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자신은 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왔으며 조국이 강해야만 행복할수 있다고 자기 아들도 그 길에 떳떳이 서주기를 바라는 이런 어머니들이 바로 조국의 어머니들이였다.

그 페지로부터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선생님이 들려준 웅심깊은 사랑이야기가 지금도 귀가에 울리는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자면 사업도 생활도 절대 버릴수 없잖나? 우리 아들도 이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야. 이제는 다 커서 어머니를 걱정하는데 정말 미덥거든. 윤실아, 아이를 키우는 맛이란 이런거야!》

본사기자

우리 공장, 우리 제품

맛좋은 강냉이가공제품들

평양시 락랑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강냉이가공기지이다.

커다란 반원형의 록색유리면과 중심부분에 금빛색갈로 강냉이이삭을 형상한 건물은 첫눈에도 멋쟁이공장이라는 느낌을 안겨준다.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였고 모든 생산공정의 무진화, 무균화를 실현한 공장에서는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여러가지 강냉이가공품을 생산하고있다.

구수한 옥쌀과 누구나 즐겨 찾는 강냉이찐빵, 어린이성장발육에 특효인 강냉이튀기와 강냉이과자, 강냉이단묵,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건강과 젊음을 주는 옥쌀기름들은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흠잡을데 없는 이 공장에서는 오늘도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황금이삭》상표를 단 갖가지 강냉이가공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본사기자